

의 胸面이 살짝 보인다.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드리우고 있다.

橫斷面 左側像(圖面一)은 폭넓은 바지를 입고 胸部에 裙紐를 매고 앞섭을 풀어헤친 길직한 套衣를 걸치고 있는데 앞가슴 윗쪽으로 上衣의 나비형 매들의 끈이 잘막히 드리어졌다. 역시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구부러 넘적다리 부분에 손을 얹고 있다.

橫斷面 右側像(圖面二)은 앞섭이 터지지 않고 목덜미가 넓은 여유있는 上衣를 입고 팔소매를 걷어 부쳤는데 下衣는 그리 폭이 넓지 못한 바지를 입고 있다. 亦是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있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내려서 圓盤形器을 쥐고 있다.

三軀가 모두 像高는 一·五尺內外에 不過한데 그 自然스러운 態度나 衣紋의 流麗함이 매우 能熟하여 조금의 無理도 없다. 圖面에는 遺憾스럽게도 顔面이 全部 보이지 않고 떠반은 팔과 손의 위치나 자세가 보이지 않으나 그런대로 重要한 意味를 暗示하여 주는 것은 像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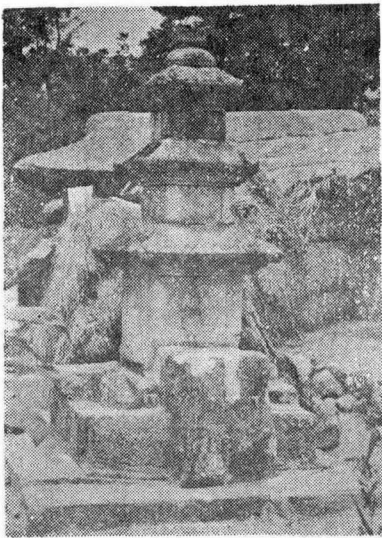
或是 童子像이 아닐까 하는데 있다. 『圖面二』에서 살짝 보이는 얼굴의 아래부분으로 미루어 보면 顔面은 등글고 살찐 모습인듯하여 斷俗寺大鑑國師塔碑(註) 등에 보이는 童子像의 그것과 흡사하며 몹시나 衣紋 등도 他例의 童子像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同殿正面門扉에도 이와 같은 얼굴을 가진 小像이 蓮華위에 나란히 세는데 衣文은 明確치 않으나

蓮莖을 휘어잡고 있는 態度라던지 한쪽 팔을 드리우고 있는 자연스런 몸맵시는 全혀 同系의 作品으로 보이는데 此像을 찬찬히 보면 觀音寺大雄殿裏面 中間門扉나 開心寺大雄殿門扉의 小像들과 더불어 佛畫나 後期木造童子像에서 보이는 모습을 여실히 지니고 있다. 더욱이 筆者가 過眼한 바 있는 江華傳燈寺大雄殿四隅의 추너를 두손으로 받들고 쪼고리고 앉아 있는 普光殿의 그것과 같은 木像(圖面四 參照)은 一見童子像으로 看取되고 있으므로 麗末鮮初의 童子像의 遺形을 이들에게서 發見할 수 있다고 보아도 좋겠다.

(註) 本誌二卷七號 山淸斷俗寺大鑑國師塔碑의 斷片條에 添加된 拓本 參照

### 溟州郡 連谷面の 三層石塔

李 載 昌



無盡寺라고 傳稱되어오는 古寺址에 高麗初期의 建立으로 推定되는 石塔一座가 遺存하는 바 일찌기 紹介된 일이 없는듯하다. 所在地는 江原道 溟州郡 連谷面 坊內里 校洞部落內이며 附近에는 瓦片 등이 散布되고 있을뿐 伽藍의 原狀은 곧 짐작할 수가 없었다.

塔은 方形의 三層으로서 總高約十一尺인 바 塔身에 比하여 基壇은 廣潤하고 二層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基壇部에서 特記할 點은 南

面的 下臺甲石上에 長矩形의 一石이 配置되고 있어 塔에 結構된 奉爐臺로 생각되는 바 그 東西側面에는 各各 座佛 一軀가 陽刻되어 있다. 塔身과 屋蓋는 各一石으로 構成되었는데 塔身에는 隅柱가 模刻되었고 第一塔身에는 各面 一軀의 座像이 陽刻되어 있어 四方佛의 方案으로 推定되었다. (南面座像만이 他像에 比하여 작은 것은 前述한 奉爐臺石의 附加로 因함) 屋蓋는 檐裏가 水平短促되었고 層級形 받침은 一層이 四段, 그 以上은 三段으로서 蓋頂의 塔身받침은 모두 一段이다. 相輪으로서는 覆鉢과 仰花만이 남았는데 前者에는 花紋結紐가 둘러새겨졌으며 後者 또한 花文이 彫飾되어 있고 그들 中央을 貫通하여 檠柱孔(直徑十五cm)이 있다. 基壇 一部가 破損된 以外는 保存이 良好한데 基壇部의 特異點과 塔身彫像의 配置等은 注目할만하다. (下基幅一三五cm 上基幅一七五cm 第一塔身 高六九cm 幅七三cm 一九六〇年 調査)

## 獸面磚

孟 仁 在

近日 蕉雨莊에서 過眼한 新出來의 浮彫로서 發見地는 慶州 興輪寺址라 傳한다. 이미 많이 發見된 瓦磚의 鬼面을 닮았기 때문에 獅子라고 꼭 斷定할 수는 없겠으나 形狀에 의하여 想像되는 用途와 表現形式이 常規에 들지 않으리라라는 점으로 必竟은 獅子가 아닌가 생각되며 몇 분의 意見도 여기에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異形磚을 처음 보았을 때 筆者는 그 新함에 雀躍할 뻔 하였다.

一

形狀은 若干 下寬上促한 橫長形이며 底邊에 넓이 二·五cm의 緣部가 있고 上邊兩端에는 얇은 立方體 突起가 있다. 浮彫는 獅子(?)의 面部로 끝났으며 中央鼻梁은 大破、兩端의 突起에도 若干의 破損이 있다.

第三卷 第四號 通卷二十一號



流暢한 渦狀말기가 끝나는 上部兩端에는 두툼한 橢圓形귀가 있고 眼部를 中心으로 한 小部分의 表現은 鬼面과 비슷하나 아가리의 變形과 橫長의 磚面을 가득 메운 渦狀으로 말린 平行曲線의 自由스러운 鬼面一般의 約束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

三

鬼面の 約束을 벗어버린 理由가 定해진 外形에 의한 制

約이라는 他律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따른 特殊한 用途도 자연 想像되지 않을 수 없다. 彫刻의 優秀性和 함께 注目되는 것은 아직 全面에 뚜렷이 남아 있는 刀痕이며 따라서 製作도 틀에 박아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押型彫出한 鬼面이 갖는 類型化된 모델링에의 努力도 볼 수 없으며 各部分의 屬性은 作者의 마음껏 伸長되고 있다.

四

이 磚의 用途는 앞에 말한 바 底緣의 構造와 上部兩端의 突起가 다른 物體에 嵌入할 때에 必要했으리라라는 점으로 대강 짐작이 되는데 昨年蔚山에서 發見된 北朝風如來座像의 獅子座도 適當한 傍證資料일 것 같다. 또 雙楹塚後北壁 夫婦圖의 向左柱頭에도 長方形의 裝飾獸面이 明確히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獅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가지 實際使用方